

추운 사람의 따뜻한 사람 선호: 사회적 배제가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 선호에 미치는 효과*

이 국 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체온과 환경온도 지각이 낮아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따뜻한 음료나 따뜻한 물 샤워 같은 물리적 따뜻함을 추구함을 관찰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색 감성 혹은 색 상징의 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색 혹은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 사진을 보여준 후, 해당 인물에 대한 호감을 평가하게 할 때, 사회적 배제 지각에 따라 호감이 달라지는지 네 가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은 따뜻한 색과 연합된 인물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과 연합된 인물에 대한 호감보다 강했지만,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색에 연합된 인물에 대한 호감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심리적 손실을 외적 목표 추구를 통해 상쇄하려 한다는 보충가설을 물리적 차원에서 감성적, 상징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심리상담소와 같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현장에 따뜻한 감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가진다.

주제어 : 사회적 배제, 감성 연합, 보충가설, 색 온도, 색 상징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7267).

† 교신저자: 이국희,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연구 분야: 사회적 배제, 사회적 범주의 응집성과 속성 일반화, 행복, 여가
E-mail: leegh1983@gmail.com

서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상처를 보상하기 위해 외적인 목표를 추구한다(Sheldon & Kasser, 2008). 발생한 심리적 손실을 외적 요소를 통해 보충하고자 하는 대표적 현상들 중 하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체의 온도가 저하되고(IJzerman et al., 2012; Zhong & Leonardelli, 2008), 환경의 온도가 실제보다 낮다고 지각한다(IJzerman & Semin, 2010). 이들은 낮아진 체온과 지각된 환경 온도를 상쇄하기 위해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 한다(Bargh & Shalev, 2011). 그렇다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색과 같은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도 따뜻함을 추구할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외적인 대상 중 하나인 사람에게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감성을 제공하는 사람과 차가운 감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사회적 배제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따뜻해 보이는 사람을 좋아할까? 반대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차가워 보이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까?

만약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와 따뜻한 물 샤워를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감성적이고 상징적 수준에 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따뜻해 보이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강해지고, 차가워 보이는 사람에 대한 호감은 약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방법 개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함’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심리적(Social-Psychological needs) 욕구 충족을 측정하는데 사용했던 문항에서 발췌한 것이다(Diener et al., 2010). 구체적으로 실험-1a와 1b에서는 ‘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네/아니오로 답변하게 한 후, ‘네’라고 답변한 사람은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없는 것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람은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할 것이다.

아울러 실험-2a와 2b에서는 컴퓨터로 진행되는 패스볼 게임 상황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Williams, Cheung, & Choi, 2000; Williams et al., 2002). 컴퓨터 패스볼 게임은 실험

참가자를 포함하여 4명이 참여하는데, 실험 참가자를 제외한 3명은 컴퓨터가 조종하는 플레이어이다.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중 하나에 할당된다. 사회적 배제가 있는 조건은 참가자에게는 오직 5번의 패스할 기회만 주어지고, 나머지 3명의 컴퓨터 플레이어들은 65회씩 패스할 기회가 주어진다. 사회적 배제가 없는 조건은 4명 모두 50번 씩 공을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see also, Nordgren, McDonnell, & Loewenstein, 2011).

인물사진의 색 감성 조작

인물사진에 대한 따뜻한 색 혹은 차가운 색 조작은 이국희 등(2015)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이국희 등(2015)에 따르면, 사람들은 파란색 계열의 색을 차가운 색으로 지각하고, 노랑색과 빨강색 계열의 색을 따뜻한 색으로 지각한다(Adams & Osgood, 1973). 그 이유는 빨강색과 노랑색이 따뜻함을 주는 ‘불’을 연상시키고, 파랑색은 불을 끄는 차가운 ‘물 혹은 바다’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Osgood, May, & Miron, 1975).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 노랑색을 따뜻한 감성의 색으로 파랑색을 차가운 감성의 색으로 사용할 것이다(Gao et al., 2007).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는 이러한 사람들의 직관에 부합한 색 조작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파워포인트는 사진의 색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따뜻한 감성을 입히고 싶다면 노랑색에 가깝게, 차가운 감성을 입히고 싶다면 파란색에 가깝게 조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파워포인트의 색 조작 기능을 사용하여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감성을 연출할 것이다.

연구가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두 가지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사회적 배제 지각 있음)은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보다 강할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사회적 배제 지각 없음)은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과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에 차이가 없을 것임을 확인할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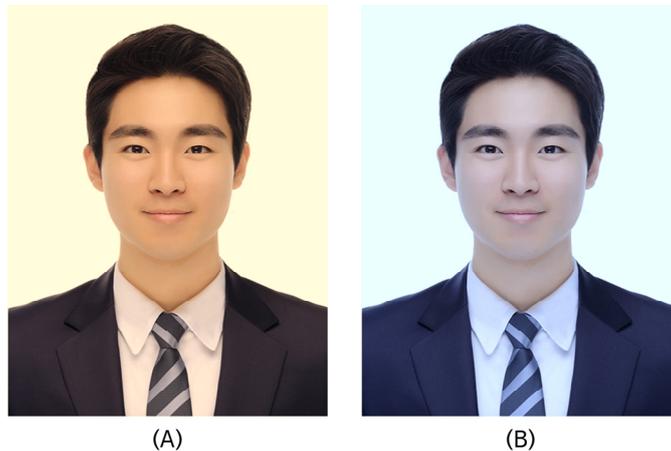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가설-a와 가설-b를 검증하는 것은 기존 이론의 확장에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같은 심리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외적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보충 가설을 색과 같은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다(Kasser & Kanner, 2004; Sheldon & Kasser, 2008; Solberg, Diener, & Robinson, 2004).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치료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처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이러한 호감은 심리적 손상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이는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와 같이 이들을 치료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치료활동과 함께 따뜻한 감성 혹은 상징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심리적 손상을 보충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1a

실험-1a는 일상생활에서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따뜻한 혹은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 배제가 이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추위를 지각함으로써 따뜻함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선행연구가 사실이라면,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은 이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따뜻한 색에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이 강할 것이고, 차가운 색에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이 약할 것이다.



(그림 1) 색 감성 조작. 색 감성 조작을 위해 연구목적 사용에 동의한 사람의 증명사진을 사용하였다. 색 감성 조작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PPT) 2013을 통해 이루어졌다. (A)는 따뜻한 색(PPT의 11200K 색온도)과 연합된 인물사진을, (B)는 차가운 색(PPT의 4700K 색온도)과 연합된 인물사진을 보여준다.

방 법

설계 및 재료

실험-1a는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의 네 가지 조건을 참가자간으로 조작하는 설계를 채택하였다. 사회적 배제 지각은 ‘어제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았습니까?’라는 문항에 네/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네’라고 답변한 참가자는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없는 사람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참가자는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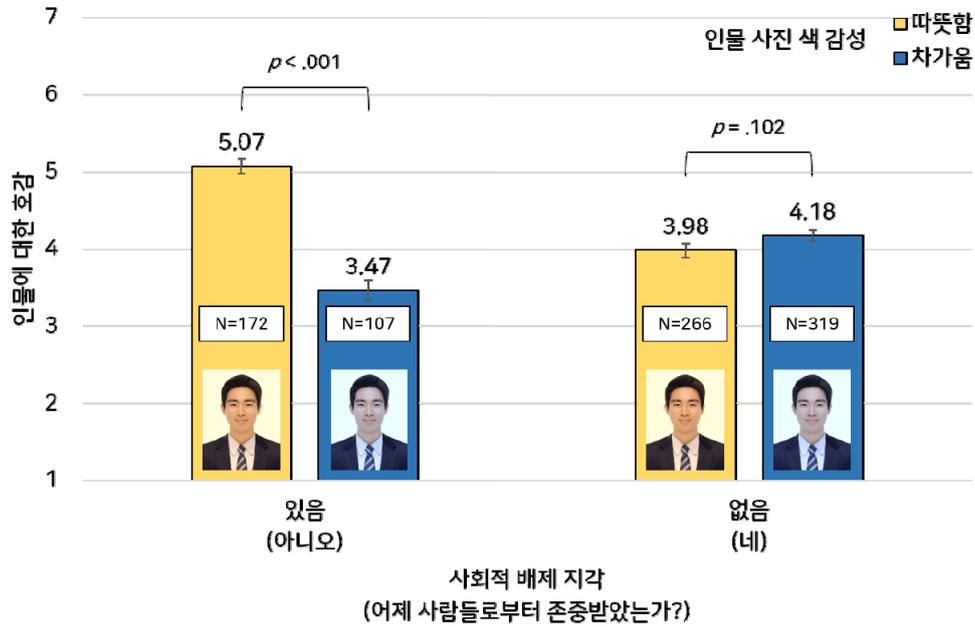
인물 사진 색 감성 조작은 연구목적으로의 사용에 동의한 남성의 증명사진에 색온도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색온도를 입히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3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따뜻한 색은 파워포인트의 그림색 조작 기능에 있는 색온도 11200K를 적용하였고, 차가운 색은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색온도 4700K를 적용하였다. 그림-1A는 따뜻한 색을 적용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1B는 차가운 색을 적용한 사진을 보여준다.

참가자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모집된 864명(남: 427, 여: 437)이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20 ~ 49세(*Mean Age* = 34.79, *SD* = 7.9)였고, 20대(20~29세)는 288명, 30대(30~39세)는 286명, 40대(40~49세)는 290명이었다.

절차

참가자들은 참가자간으로 조작된 인물 사진 색 감성(따뜻함 vs. 차가움)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따뜻한 색 조건 참가자들은 그림-1A와 같은 사진을 본 후,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차가운 색 조건 참가자들은 그림-1B와 같은 사진을 본 후, 같은 질문에 답하였다. 인물에 대한 호감을 측정할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 지각을 묻는 ‘어제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질문에 네/아니오로 답변하였다. 실험에는 5분이 소요되었고, 참가자에게는 1,000원이 지급되었다.



(그림 2) 실험-1a의 결과.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 사진 색 감성의 이원상호작용

결 과

사회적 배제 지각 조건 구분

조사대상 864명 중 ‘어제 사람들로 부터 존중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279명이었고, ‘네’라고 응답한 사람은 585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279명은 사회적 배제 지각 ‘있음’ 조건으로, ‘네’라고 응답한 585명은 사회적 배제 지각 ‘없음’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가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F(1, 862) = 3.4, p = .065$). 그러나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 862) = 46.61, p < .001, \eta_p^2 =$

.05). 구체적으로 인물사진 색 감성이 따뜻할 때 해당 인물에 대한 호감($M = 4.41, SE = .07$)이 색 감성이 차가울 때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4.00, SE = .07$)보다 강했다.

또한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860) = 75.89, p < .001, \eta_p^2 = .08$). 그림-2는 사회적 배제와 인물사진 색 감성의 상호작용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사회적 배제 있음: 존중받지 못함)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M = 5.07, SE = .1$)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47, SE = .13$)보다 강했다($t(277) = 10.04, p < .001$).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사회적 배제 없음: 존중받음)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에 대한 호감($M = 3.98, SE = .1$)과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4.18, SE = .07$)에 차이가 없었다($t(583) = 1.64, p = .102$). 이 역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험-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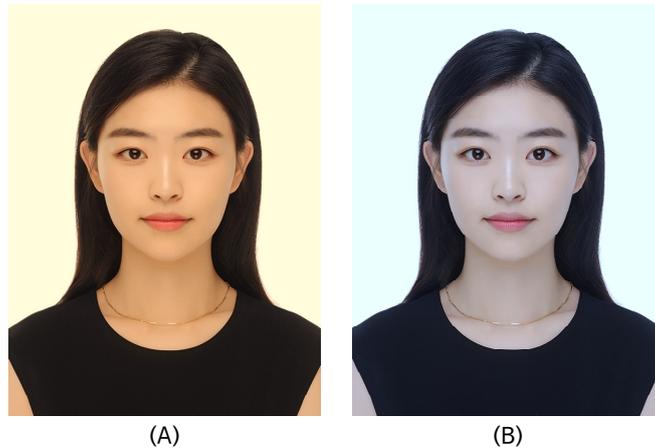
실험-1a는 남성 인물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1b는 여성 인물 사진에도 동일한 조작을 한 후, 실험-1a에서 관찰한 현상을 재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남성 인물 사진에 대한 선호 평가와 여성 인물 사진에 대한 선호 평가를 분리하여 진행한 것에는 통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먼저 한 연구에서 피평가 대상(사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경우, 실험 참가자의 성별과 피평가 대상의 성별의 이원상호작용이 피평가 대상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제시하면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실험 참가자들이 남성 평가와 여성 평가를 비교하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세 가지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첫째, 참가자 성별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배제와 색온도의 효과가 아닌 남성 평가와 여성 평가의 차이로 해석 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배제와 색온도의 효과가 피평가 대상의 성별에 의해 상쇄되어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1a에서는 남성 사진만 사용하였고, 실험-1b에서는 여성 사진만 사용하였다.

방 법

설계 및 재료

실험-1b는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의 네 가지 조건을 참가자간으로 조작하는 설계를 채택하였다. 사회적 배제 지각은 ‘어제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았습니까?’라는 문항에 네/아니오로 답변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네’라고 답변한 참가자는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없는 사람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참가자는 지각된 사회적 배제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인물 사진 색 감성 조작은 연구목적으로의 사용에 동의한 여성의 증명사진에 색온도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색온도를 입히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2013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따뜻한 색은 파워포인트의 그림색 조작 기능에 있는 색온도 11200K를 적용하였고, 차가운 색은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색온도 4700K를 적용하였다. 그림-3A는 따뜻한 색을 적용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림-3B는 차가운 색을 적용한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3) 색 감성 조작. 색 감성 조작을 위해 연구목적 사용에 동의한 사람의 증명사진을 사용하였다. 색 감성 조작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PPT) 2013을 통해 이루어졌다. (A)는 따뜻한 색(PPT의 11200K 색온도)과 연합된 인물사진을, (B)는 차가운 색(PPT의 4700K 색온도)과 연합된 인물사진을 보여준다.

참가자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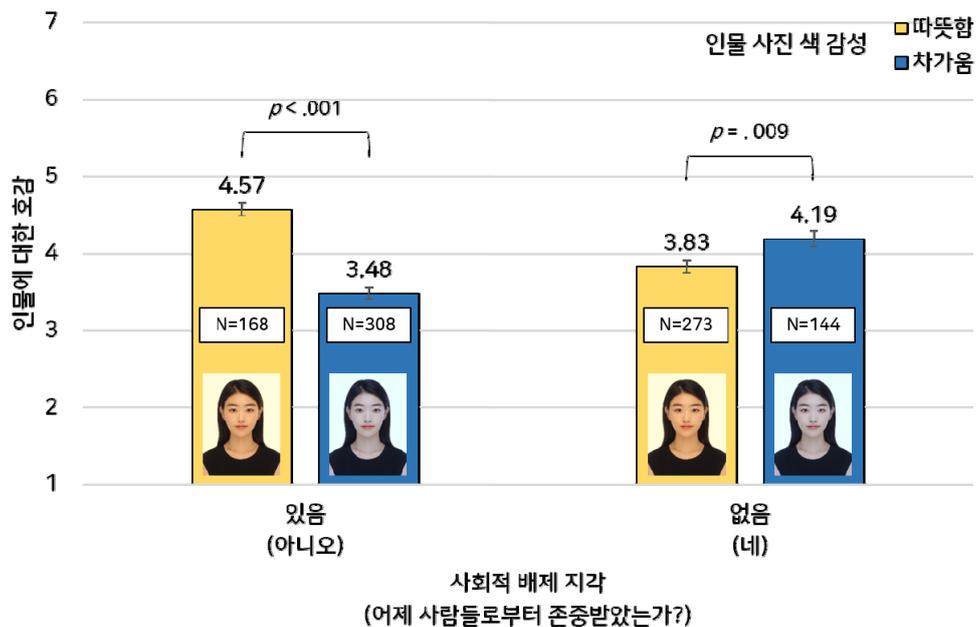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모집된 893명(남: 468, 여: 425)이 참여하였다.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20 ~ 49세($Mean\ Age = 35.55, SD = 8.02$)였고, 20대(20~29세)는 255명, 30대(30~39세)는 306명, 40대(40~49세)는 332명이었다. 나머지 실험 절차는 실험-1a와 동일하였다. 실험에는 5분이 소요되었고, 참가자에게는 1,000원이 지급되었다.

결 과

사회적 배제 지각 조건 구분

조사대상 893명 중 ‘어제 사람들로 부터 존중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476명이었고, ‘네’라고 응답한 사람은 417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476명은 사회적 배제 지각 ‘있음’ 조건으로, ‘네’라고 응답한 417명은 사회적 배제 지각 ‘없음’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4) 실험-1b의 결과.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 사진 색 감성의 이원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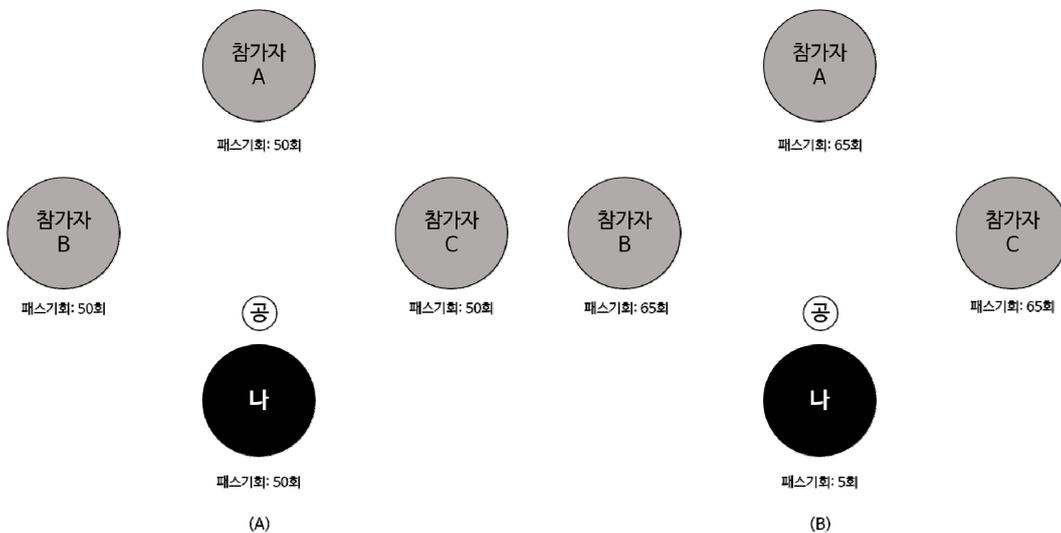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

(따뜻함 vs. 차가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가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F(1, 891) = .012, p = .912$). 그러나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 891) = 15.74, p < .001, \eta_p^2 = .02$). 구체적으로 인물사진 색 감성이 따뜻할 때 해당 인물에 대한 호감($M = 4.11, SE = .07$)이 색 감성이 차가울 때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71, SE = .06$)보다 강했다.

또한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889) = 63.28, p < .001, \eta_p^2 = .07$). 그림-4는 사회적 배제와 인물사진 색 감성의 상호작용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사회적 배제 있음: 존중받지 못함)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M = 4.57, SE = .09$)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48, SE = .07$)보다 강했다($t(474) = 9.1, p < .001$).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사회적 배제 없음: 존중받음)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에 대한 호감($M = 3.83, SE = .09$)이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4.19, SE = .1$)보다 약했다($t(415) = 2.61, p = .009$). 이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종합논의에 기술하겠다.



(그림 5) 컴퓨터 패스볼 게임 화면. 게임이 시작되면 나에게 공이 주어진다. 나는 키보드의 화살표키를 사용하여 참가자A, B, C중 한 명에서 공을 보낼 수 있다. A에게 보내고 싶다면 키를, B에게 보내고 싶다면 키를, C에게 보내고 싶다면 키를 누르면 된다. 공 패스는 총 200회 진행되는데, (A) 사회적 배제 지각 없음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패스할 기회가 50회씩 공정하게 주어진다. (B) 사회적 배제 지각 있음 조건은 내가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5회 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참가자A, B, C끼리 65회씩 패스를 주고 받는다.

실험-2a

실험-1a와 1b는 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는지 질문한 후 따뜻한 혹은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험-1a와 1b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에 가까우며, 사회적 배제가 색 감성 선호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를 조작한 실험이 필요하다. 실험-2a는 이러한 실험-1a와 1b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험-2a는 실험실 상황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했을 때도 앞선 두 가지 실험에서 관찰한 현상을 재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 법

설계 및 재료

실험-2a는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의 네 가지 조건을 참가자간으로 조작하는 설계를 채택하였다. 사회적 배제 지각은 컴퓨터를 활용한 패스볼 게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패스볼 게임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C# 프로그래밍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Petzold, 2002). 그림-5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제시된 패스볼 게임의 시작 화면을 보여준다. 먼저 색 감성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패스볼 게임 화면은 무채색으로 구성하였다. 패스볼 게임을 시작하면 그림-5처럼 나에게 공이 주어진다. 나는 키보드의 화살표키를 사용하여 참가자 A, B, C 중 한 명에게 패스를 할 수 있다. A에게 보내고 싶다면 키를, B에게 보내고 싶다면 키를, C에게 보내고 싶다면 키를 누르면 된다.

패스는 총 200회 이루어지고, 200회가 마무리되면 게임이 종료되면서 공이 화면 중앙으로 이동한다. 사회적 배제 지각 없음 조건은 시작할 때 패스한 것을 포함하여 나와 나머지 참가자들이 50회 씩 공평하게 패스를 주고받는다(그림-5A). 반면 사회적 배제 지각 있음 조건은 시작할 때 패스한 것을 포함하여 내가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5회밖에 주어지지 않으며(그림-5B), 컴퓨터가 조종하는 참가자 A, B, C가 65회 씩 패스를 주고받는다. 패스볼 게임을 수행하는 것에는 약 8분이 소요되었다. 인물사진 색 감성 조작은 실험-1a와 동일하였다(그림-1).

참가자 및 절차

18 ~ 36세 사이(*Mean Age* = 22.63, *SD* = 2.58)의 대한민국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480명(남: 240, 여: 240)이 참여하였다.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두 가지 독립적인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나는 온라인 패스볼 게임에 대한 베타 버전 테스트로 다른 실험실에서 동일한 과제에 참여한 (실제) 사람 3명(사실은 컴퓨터 플레이어)과 패스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의 증명사진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안내를 들은 참가자들은 사회적 배제 있음 혹은 없음 조건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배정된 조건에 따라 그림-5와 같이 패스볼 게임을 수행하였다. 패스볼 게임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패스볼 게임이 키보드가 원활하게 작동하였는지, 화면에 흔들림은 없었는지, 인터넷 연결 상태는 양호하였는지, 공이 원하는 곳으로 패스되었는지에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후, 자리를 옮겨 인물 사진 평가 과제를 수행하였다.

인물 사진 평가를 위해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따뜻한 색 감성 혹은 차가운 색 감성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따뜻한 색 감성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그림-1A와 같이 따뜻한 색이 입혀진 남성 인물사진을 보았고, 차가운 색 감성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은 그림-1B와 같이 차가운 색이 입혀진 남성 인물사진을 보았다. 조건에 따라 인물 사진을 본 참가자들은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실험에는 15분이 소용되었고, 참가자에게는 3,000원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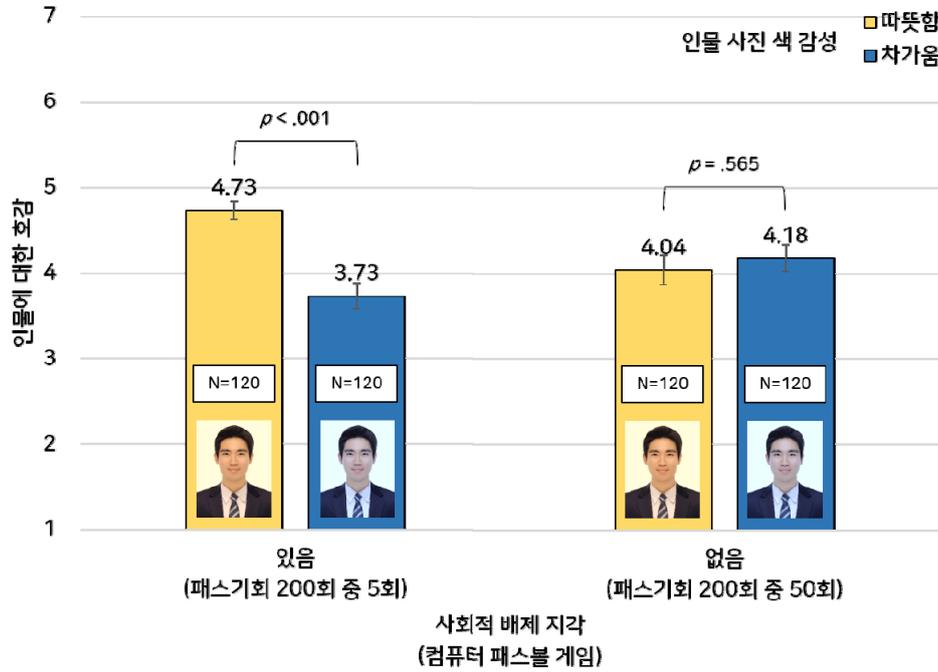
결 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가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F(1, 478) = .66, p = .418$). 그러나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 478) = 8.3, p = .004, \eta_p^2 = .017$). 구체적으로 인물사진 색 감성이 따뜻할 때 해당 인물에 대한 호감($M = 4.38, SE = .1$)이 색 감성이 차가울 때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95, SE = .11$)보다 강했다.

또한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476) = 14.26, p < .001, \eta_p^2 = .03$). 그림-6은 사회적 배제와 인물사진 색 감성의 상호작용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사회적 배제 있음: 패스기회 200회 중 5회 밖에 주어지지 않음)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M = 4.73, SE = .11$)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73, SE = .15$)보다 강했다($\alpha(238) = 5.29, p < .001$).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사회적 배제 없음: 패스기회 200회 중 50회가 공

이국희 / 추운 사람의 따뜻한 사람 선호: 사회적 배제가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 선호에 미치는 효과



(그림 6) 실험-2a의 결과.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 사진 색 감성의 이원상호작용

평하기 주어짐)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에 대한 호감($M = 4.04, SE = .17$)과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4.18, SE = .16$)에 차이가 없었다($t(238) = .58, p = .565$). 이 역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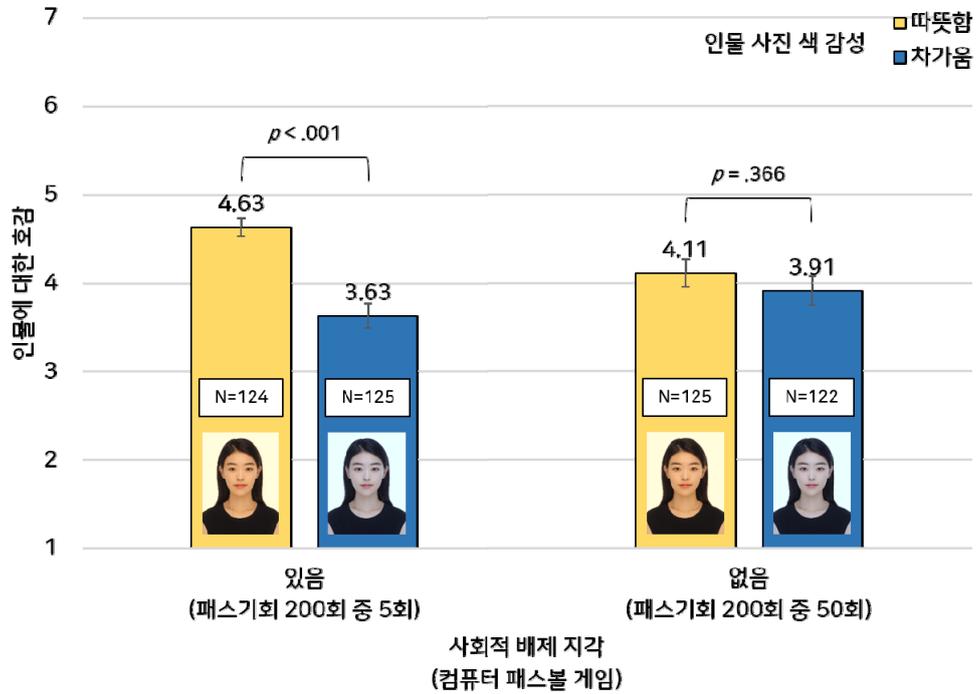
실험-2b

실험-2a는 남성 인물에 한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2b는 여성 인물에게 동일한 조작을 한 후, 실험-2a에서 관찰한 현상을 재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 법

설계 및 재료

실험-2b는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의 네



(그림 7) 실험-2b의 결과.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 사진 색 감성의 이원상호작용

가지 조건을 참가자간으로 조작하는 설계를 채택하였다. 사회적 배제 조작은 실험-2a와 동일하게 수행하였고(그림-5), 인물사진 색 감성 조작은 실험-1b와 동일하였다(그림-3).

참가자 및 절차

18 ~ 35세 사이($Mean\ Age = 22.51, SD = 2.37$)의 대한민국 서울 소재 대학교 학부생 496명(남: 249, 여: 247)이 참여하였다. 나머지 실험 절차는 실험-2a와 동일하였다. 실험에는 15분이 소요되었고, 참가자에게는 3,000원이 지급되었다.

결 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지각 2(있음 vs. 없음) × 인물 사진 색 감성 2(따뜻함 vs. 차가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가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F(1, 494) = .72, p = .396$). 그러나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 494) = 18.12, p < .001, \eta_p^2 = .04$). 구체적으로 인물사진 색 감성이 따뜻할 때 해당 인물에 대한 호감($M = 4.37, SE = .09$)이 색 감성이 차가울 때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77, SE = .11$)보다 강했다.

또한 사회적 배제 지각과 인물사진 색 감성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1, 492) = 7.96, p = .005, \eta_p^2 = .016$). 그림-7은 사회적 배제와 인물사진 색 감성의 상호작용이 인물에 대한 호감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사회적 배제 있음: 패스기회 200회 중 5회 밖에 주어지지 않음)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M = 4.63, SE = .11$)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63, SE = .14$)보다 강했다($t(247) = 5.79, p < .001$). 이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사회적 배제 없음: 패스기회 200회 중 50회가 공평하기 주어짐)은 따뜻한 색을 입혀 제시된 인물에 대한 호감($M = 4.11, SE = .15$)과 차가운 색을 입혀 제시된 동일 인물에 대한 호감($M = 3.91, SE = .16$)에 차이가 없었다($t(245) = .91, p = .366$). 이 역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려는 경향과 따뜻한 물 샤워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관찰한 선행연구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따뜻함 선호를 물리적 차원 뿐 아니라, 색과 같은 감성적 차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4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a와 1b는 ‘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회적 배제 지각을 확인한 후(Diener et al., 2010), 따뜻한 색을 입힌 인물 사진과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 사진에 대한 호감을 측정하였다. 실험-1a는 남성인물 사진을 사용하였고, 실험-1b는 여성인물 사진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은 따뜻한 색을 입힌 인물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에 대한 호감보다 강했지만,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색 감성을 입힌 인물에 대한 호감에 차이가 없었다¹⁾.

실험-2a와 2b는 컴퓨터 패스볼 게임을 통해 사회적 배제 지각을 조작한 후(Williams et al., 2000; 2002), 따뜻한 색을 입힌 인물 사진과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 사진에 대한 호감을 측정하였다. 실험-2a는 남성인물 사진을 사용하였고, 실험-2b는 여성인물 사진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1) 실험-1b에서 사회적 배제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험-1b를 제외한 3개의 실험에서 차이가 없었으므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로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들은 따뜻한 색을 입힌 인물에 대한 호감이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에 대한 호감보다 강했지만,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 색 감성을 입힌 인물에 대한 호감에 차이가 없었다.

시사점과 선행 연구와의 연관성

본 연구는 심리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외적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보충 가설을 색과 같은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으로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Kasser & Kanner, 2004; Sheldon & Kasser, 2008; Solberg, Diener, & Robinson, 2004). 즉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물리적 따뜻함으로 낮게 지각된 기온을 보충할 뿐 아니라(Bargh & Shalev, 2011; IJzerman et al., 2012), 색과 같은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도 따뜻함을 추구함으로써 심리적 손실을 보충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에게 색과 같은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따뜻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에 발생한 손실을 보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은 따뜻한 감성의 색을 추구하는데, 이는 발생한 심리적 손상을 보충하기 위함이다(Kasser & Kanner, 2004; Sheldon & Kasser, 2008; Solberg et al., 2004). 이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치료목적으로 대하는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의사들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색과 같은 감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의사들이 입는 옷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거나, 따뜻한 조명이나 인테리어를 활용하여 상담실이나 진료실, 대기실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연출할 수 있다면,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컵에 담긴 음료가 따뜻할 때가 차가울 때보다 마주 앉은 사람에게 지각된 호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Williams & Bargh, 2008).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컵에 담긴 음료의 물리적 온도가 인물에서 지각된 호감에 미치는 효과를 인물과 연합된 감성적 온도(색온도)가 그 인물에서 지각된 호감에 미치는 효과로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지각한 사람은 감성적 온도가 따뜻한 사람을 차가운 사람보다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성적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한 참신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홍성균, 김경호, 이형철, 김신우(2017)와도 연관성을 가진다. 홍성균 등(2017)은 ‘따뜻한’이라는 형용사가 제시된 후에 따뜻한 색이 제시되면, 따뜻한 색이라고 반응하는 시간이 빨라지지만, 차가운 색이 제시되면 차가운 색이라고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관찰한 바 있다. 이는 어떤 색을 기대하는지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감성을 기대하고 있었는지가 인물에 대한 선호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부연하자면 사회적 배제가 이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감성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기대하고 있는 따뜻한 색 감성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선호가 기대하지 않은 차가운 색 감성에 대한 선호보다 강해지는 효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배제를 지각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험-1a와 실험-1b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사회적 배제 지각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는지’를 물어보았다. 결과적으로 실험-1a와 1b에 참여한 조사대상 1,757명 중 ‘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755명으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43%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이 사회적 배제를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사회적 배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계와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이론적, 실무적, 사회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색이라는 단일한 차원으로 감성을 조작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느끼는 감성이 색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향과 같은 다른 차원에서 감성을 조작한 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따뜻한 향과 차가운 향으로 구분한 후, 사회적 배제 지각에 따라 해당 향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관찰한 현상을 재관찰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손실을 향과 같은 감성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본 연구는 사람들이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을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보다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만으로는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을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고 지각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을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지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험-2a에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2a에 대한 한 가지 예측 가능한 비판이 존재한다. 바로 패스볼 게임에 대한 조작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험-2a에서 조작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실험-1a와 실험-1b

험-1b에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집단’(사회적 배제)은 따뜻한 색온도와 함께 제시된 인물을 차가운 색온도와 함께 제시된 인물보다 선호하지만, ‘존중받은 집단’(통제)은 두 가지 색온도와 함께 제시된 인물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험-2a는 실험-1a 그리고 실험-1b와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실험-2a의 조작성이 실험-1a와 1b와 동일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조작 점점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게다가 본 연구는 따뜻한 감성의 색, 차가운 감성의 색을 사용하였지만, 색에서 지각되는 감성에 따뜻함과 차가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흰색에서는 깨끗함, 순결함, 도덕성이 높음 등의 감성을 경험하지만, 검정색에서는 더러움, 오염됨, 도덕성이 낮음 등의 감성을 경험한다(Sherman & Clore, 2009). 만약 실험 참가자들이 호감을 평가해야 하는 대상이 실험-2a와 2b에서 수행한 패스볼 게임 사회적 배제 조건의 컴퓨터 플레이어들이 사회적 배제를 가한 사람들로 전환한다면 어떨까? 또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을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떤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까? 아마 연구의 주제가 도덕성 지각으로 확장될 것이며, 가해자가 흰색과 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검은색과 연합되어 있는지가 가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혹은 피해자가 흰색과 연합되어 있는지 검은색과 연합되어 있는지가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실험-1b의 통제조건에서 차가운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이 따뜻한 색과 연합된 사람에 대한 호감보다 높아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실험-1b의 위와 같은 결과는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는 실험-1b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실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실험-1a, 2a, 2b의 통제집단은 따뜻한 색온도와 연합된 사람과 차가운 색온도와 연합된 사람 간의 호감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1b에서 나타난 통제집단의 반응 경향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와 같은 물리적 따뜻함을 추구함으로써 심리적 손실을 보충하려 한다는 가설을 색과 같은 감성적이고 상징적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지각을 조작한 후, 따뜻한 색을 입힌 인물 사진과 차가운 색을 입힌 인물 사진을 보고 각 사람에 대한 호감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발생한 심리적 손상을 보충하기 위해 따뜻한 감성의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물리적 차원에만 적용하던 보충가설을 감성적

이고 상징적인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 뿐 아니라,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의사들이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한 감성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추운 사람은 따뜻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참고문헌

- 이국희, 이형철, 안충현, 기명석, 김신우 (2015). 영상의 색온도와 향의 감성적 일치가 영상실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HCI학회 논문지**, 10(1), 29-41.
- 홍성균, 김경호, 이형철, 김신우 (2017). 형용사의 의미가 색 구별에 미치는 영향: 스트룹 과제를 통한 검증. **인지과학**, 28(1), 27-42.
- Adams, F. M., & Osgood, C. E. (1973).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affective meanings of col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 135-156.
- Bargh, J. A., & Shalev, I. (2012). The substitutability of physical and social warmth in daily life. *Emotion*, 12(1), 154-162.
- Diener, E., Ng, W., Harter, J., & Arora, R. (2010).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lif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1), 52-61.
- Gao, X. P., Xin, J. H., Sato, T., Hansuebsai, A., Scalzo, M., Kajiwara, K., ... & Billger, M. (2007). Analysis of cross cultural color emotion. *Color Research & Application*, 32(3), 223-229.
- IJzerman, H., Gallucci, M., Pouw, W. T., Weißgerber, S. C., Van Doesum, N. J., & Williams, K. D. (2012). Cold-blooded loneliness: Social exclusion leads to lower skin temperatures. *Acta Psychologica*, 140(3), 283-288.
- IJzerman, H., & Semin, G. R. (2010). Temperature perceptions as a ground for social proxim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6), 867-873.
- Kasser, T., & Kanner, A. D. (Eds.). (2004).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rdgren, L. F., McDonnell, M. H. M., & Loewenstein, G. (2011). What constitutes torture? Psychological impediments to an objective evaluation of enhanced interrogation tactics. *Psychological Science*, 22(5), 689-694.
- Osgood, C. E., May, W. H., & Miron, M. S. (1975). *Cross-cultural universals of affective meaning*.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Petzold, C. (2002). *Programming Microsoft Windows with C#*. London, UK: Microsoft Press, Pearson.

- Sheldon, K. M., & Kasser, T. (2008). Psychological threat and extrinsic goal striving. *Motivation and Emotion*, 32(1), 37-45.
- Sherman, G. D., & Clore, G. L. (2009). The color of sin: White and black are perceptual symbols of moral purity and pollution. *Psychological Science*, 20(8), 1019-1025.
- Solberg, E. G., Diener, E., & Robinson, M. D. (2004). Why are materialists less satisfied? In T. Kasser & A. D. Kanner (Eds.), *Psychology and consumer culture: The struggle for a good life in a materialistic world* (pp. 29-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lliams, L. E., & Bargh, J. A. (2008).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promotes interpersonal warmth. *Science*, 322(5901), 606-607.
- Williams, K. D., Cheung, C. K., & Choi, W. (2000). Cyberostracism: effects of being ignored over the Intern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48-762.
- Williams, K. D., Govan, C. L., Croker, V., Tynan, D., Cruickshank, M., & Lam, A. (2002). Investigations into differences between social-and cyberostracism.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6(1), 65-77.
- Zhong, C. B., & Leonardelli, G. J. (2008). Cold and lonely does social exclusion literally feel cold? *Psychological Science*, 19(9), 838-842.

1차 원고 접수: 2018. 07. 02
1차 심사 완료: 2018. 10. 18
2차 원고 접수: 2018. 11. 01
2차 심사 완료: 2018. 11. 08
3차 원고 접수: 2018. 11. 23
최종 게재 확정: 2018. 11. 23

(Abstract)

**Cold persons' preference for warm persons: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preference
for persons depicted in warm colors**

Guk-Hee Lee

Division of Gene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Previous works have observed that persons who have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have lower perceptions of body temperature and environmental temperature, and seek physical warmth such as warm drinks and warm water shower.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and the results of these previous works to the dimensions of color emotions or color symbols. Hence, four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which pictures of people with warm or cold colors applied to them were shown to the subjects, who were asked to evaluate the people in the pictures to determine whether their preferences changed depending on their perception of social ex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ubjects with perceived social exclusion had stronger preferences for people in warm colors over those in cold colors, but the subjects without perceived social exclusion had no differences in their preferences for the people in the two types of color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ed the compensation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people try to compensate their psychological loss by pursuing external goals from the physical dimension to the emotional and symbolic dimensions. Furtherm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proposes the need for warm emotions in places wher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are treated,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Key words : social exclusion, emotional association, compensation hypothesis, color temperature, color symbol